

## 지역지리연구의 새로운 접근법과 중등지역지리 단원학습

손 명 철\*

### 目 次

- I. 머리말
- II. 地域地理研究의 새로운 接近法
- III. 中等地域地理 單元學習에의 示唆
- IV. 요약 및 결론

## I. 머리말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지역지리 중심의 지리학 연구는 지리학계 안팎으로부터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였다. 지리학 외부로부터의 비판은 근본적으로 지리학의 학문적 존재 의미에 회의를 보내거나<sup>1)</sup>, 지식의 구조 측면에서 지리학을 개념과 이론의 생산자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로 규정하기도 하였다.<sup>2)</sup> 중등학교 교과교육 차원에서의 비판은 주로

\*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조교수

- 1) Edward Tenner, "Harvard, Bring Back Geography!" *Harvard Magazine*, (1988) pp.27-30. 1948년 당시 하버드대학 총장인 James Conant는 "산과 강 이름이나 외우도록 하는 지리학은 대학에서 가르칠 가치가 없다"고 단정짓고, 하버드대학 지리학과 폐쇄를 결정하였다 이후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잇따라 지리학과가 문을 닫았는데 스탠포드(1962), 예일(1960년대 말), 미시건(1981)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이들 대학에서 지리학과가 문을 닫게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의 지리학과들이 대학 재정확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 2) N.J.Graves/이희연 譯, 『地理教育學概論』, (서울:교학연구사, 1984), pp.96-100. 영국의 교육철학자 Hirst, P. H.는 어떤 분과학문이 자신만의 고유한 概念과 眞僞檢證方法을 가지고 있는냐의 여부에 따라, 知識을 크게 形態(forms of knowledge)와 領域(fields of knowledge)으로 구분하면서 地理學은 "자신의 고유한 概念과 眞僞檢證方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여타 知識의 形態로부터 적절한 概念이나 眞僞檢證方法을 빌어와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다른 분과학문에 寄生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지식의 구조에 기초한 知識分類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中等學校 教科目으로서의 地理科 存在意味를 근본적으로 再檢討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지리단원의 교과내용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 지리학계 내에서도 地誌教育 혹은 地域地理教育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안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지교육은 목표설정이 곤란함으로 인해 산문적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양화될 소지가 있음을 전제하고, 따라서 地誌單元을 직접적으로 구조화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기본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고,<sup>4)</sup> 중등학교의 경우 地域에 대한 記述을 단순한 事象에 대한 記述만 할 것이 아니라 事象의 상호관계가 결합된 地域性을 중심으로 記述하고, 學習方法에 있어서도 地域性에 대한 究明과 地域性 形成要因을 학생 스스로 터득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sup>5)</sup> 고등학교 지리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5종 교과서의 지역지리단원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地域에 대한 단순한 羅列式 記述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up>6)</sup>

이 글은 지리학 연구의 한 분야로서, 그리고 중등학교 지리교과내용의 핵심부분으로서의 지역지리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쓰여진 것이다. 그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지리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가능성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역지리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을 4가지로 정리하고, 우리 국토공간을 연구하는데 이들 접근법이 가지는 유의미성, 혹은 적실성(relevancy)을 검토한다. 나아가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가 중등학교 지역지리 단원학습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Ⅱ. 地域地理研究의 새로운 接近法

최근의 지역지리연구는 크게 네 갈래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構造化理論에서

- 3) 이흥우, 『教育課程探究』, (서울:박영사, 1977), pp.21-24. 이흥우는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지역지리단원 내용 중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도시들에 대한 설명을 예시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릇되게 전달한다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4) 김상호, “地理教育論序說”, 『研究論叢』,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회(1971), pp.105-110.
- 5) 김일기, “地誌教育의 諸問題”,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서울:교학사, 1983), pp.595-613.
- 6) 진기문, “高等學校 地域地理의 分析”, 『地理教育論集』, 第21輯, (1989), pp.80-96.

출발하여 시간지리학으로 연결되는 연구흐름, 空間的 分業理論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世界體制論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연구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脫-後期構造主義 시대에 인간주체를 강조하려는 연구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이들 네 조류의 연구 흐름들을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입장과 경험적 연구업적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 국토공간연구에의 적실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構造化理論의 接近(Structuration Theory Approach)

이는 기든스의 構造化理論과 헤게스트란드의 時間地理學을 주요 아이디어로 하는 연구들이다.

構造化 理論은 구조주의 맑시즘의 과도한 결정론과 현상학의 비역사적, 비맥락적 접근사이의 결합을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하위분야로 갈라져 있는 지리학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7)</sup> 이는 능동적이고 의식있는 인간주체를 상정하며 사회구조를 의식적 행위의 비의도적 산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구조는 이를 창출하는 인간의 의도적 행위로 환원될 수도 없고 이에 독립적일 수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 대한 연구에는 통상 세 가지 분석수준이 존재한다.<sup>8)</sup> 構造(structures)와 制度(institutions), 그리고 行爲者(agents)가 그것이다. 構造란 사회적 실천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변적이고, 인간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노동과 자본간의 관계, 사회적 성 관계(gender relations), 국가 등은 모두 구조의 차원에 속한다. 制度란 구조가 실제로 표출된 것이며, 시공간상에 伸張되어 있다. 예컨대, 국가의 각 기관이나 다국적 기업, 노동조합, 지방정부, 그리고 가족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行爲者란 인간 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행위수행을 통해 사회적 과정의 결과를 조형한다.

이와 같은 전통속에서 그레고리는 영국 요크셔지방의 양모공업의 지리<sup>9)</sup>를, 프레

7) Barney Warf, "Locality Studies", *Urban Geography*, 10(2), (1989), p.179.

8) Joost Hauer, "What about regional geography after structuration theory?" in R.J. Johnston, J. Hauer,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p.98.

9) D. Gregory, *Regional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 Revolution: A Geography of the Yorkshire Woollen Indus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드는 스웨덴 남부 스케인지방의 엔클로저 운동과 장소의 생성<sup>10)</sup>을, 그리고 디어와 무스(Deer & Moos)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지역에서의 정신질환자들의 게토 형성을 연구<sup>11)</sup>하였다. 특히 그레고리가 구조화 이론을 그의 경험적 연구에 끌어들이는 두가지 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구조화 이론에서 나온 개념을 사용해서 요크셔지방 양모공업에 대한 역사지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구조화 개념에서 시-공간 이론이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는 지역변동의 지리를 세가지 스케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지방스케일, 지역스케일, 그리고 국가스케일이 그것이다. 그레고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가지 공간적 스케일을 고립적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케일에서의 시-공간 리듬이 다른 스케일의 그것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주요 연구초점은 경제지리이지만 이는 정치지리와 이데올로기 지리와의 밀접하게 중첩되어 있다.<sup>12)</sup>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인간행위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특성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다른 한쪽, 즉 일상생활의 의식적 행위가 사회구조를 비의도적으로 생산·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2. 空間分業論的 接近(Spatial Division of Labour Approach)

이는 매시의 空間的 分業理論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그것의 변화 메카니즘을 밝히려는 소위 '로컬러티연구'들이다.

매시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구조는 그 지역의 '역할', 즉 국가 및 국제적 분업내에서의 비교우위에 기초해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의 '역할'이 변하기 때문에, 각 시기별 투자특성과 일치하는 투자의 '층'(layers of investment)이 마치 지층과 같이 한층씩 누적되어 간다.

10) Allan Pred,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in D. Gregory and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Macmillan, 1985), pp.337-365.

11) Michael Dear and A. I. Moos, "Structuration theory in urban analysis:2. empirical appli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18(3), (1986), pp.351-373.

12) Paul Cloke, Chris Philo and David Sadler, *Approaching Human Geography*, (New York and London:The Guilford Press, 1991), pp.119-124.

이처럼 각각 새로운 생산의 라운드(round)가 지역내에 沈積되기 때문에, 지역의 모습은 항상 이전 투자층의 잔여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계속 변형된다. 따라서 개별 지역은 광범한 경제적 프로세스 속에서도 고유한 正體性(unique identities)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매시의 연구<sup>13)</sup>가 단연 주류를 이루며, 어리<sup>14)</sup>와 마쿠센(Markusen)<sup>15)</sup>의 연구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영국의 7개 소지역을 사례로 경제재구조화라고 하는 보편적 프로세스가 각 소단위 지역에 어떤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지역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물<sup>16)</sup>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매시의 이론은 구조화 이론이 가지는 오류, 즉 생산이론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지만, 이것 역시 사회적 재생산과 정치,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같은 생생한 이슈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스미스(Smith, N.)는 로캘러티연구(The CURS research)가 전통적인 地域誌(chorology)로 대표되는 비이론적 경험주의로 매몰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sup>17)</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로캘러티연구는 로캘러티 자체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좀더 광범한 법칙과 일반화를 추구하려는 맥락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하비(Harvey, D.) 역시 이와 같은 로캘러티연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론을 내팽개치고, 장소와 순간의 특이성으로 퇴행하여, 소박한 경험주의에 탐닉하면서,

13) D. Massey, "Regionalism:some current issues", *Capital and Class*, 6, (1978), pp.106-125; "In what sense a regional problem?" *Regional Studies*, 13(2), (1979), pp.233-243; "Industrial restructuring as class restructuring:producti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uniqueness", *Regional Studies*, 17(2), (1983), pp.73-89; *Spatial Division of Labor*, (London:Methuen, 1984); "Spatial labour market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78(5), (1987), pp.374-379; "Politics and space/time", *New Left Review*, 196, (1992), 65--84; "Questions of locality", *Geography*, 78(2), (1993), pp.142-149.

14) John Urry, "Locality Research:The Case of Lancaster", *Regional Studies*, 20(3), (1986), pp.233-242.

15) Ann Markusen, *Regions: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Territory*, (Totowa,NJ:Rowman and Littlefield, 1987).

16) P. Cooke, ed., *Localities:The Changing Face of Urban Britain*, (London:Unwin Hyman, 1989).

17) Neil Smith, "Dangers of the empirical turn:some comments o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19(1), (1987), pp.59-68.

사례와 똑같은 수의 이론을 양산하는 유흥'<sup>18)</sup>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 3. 世界體制論的 接近(World System Approach)

이는 월러스타인(Wallerstein, I.)의 世界體制論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입장이다. 월러스타인의 주장에 따르면<sup>19)</sup>, 이제 세계는 국가간 연계성이 대단히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동인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총체적인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체제는 그 자신만의 動因을 가질뿐만 아니라,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동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기본적으로 核心部와 周邊部, 그리고 半周邊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반주변부는 핵심부와 주변부를 제외한 단순한 나머지 지역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경제에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핵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관계가 양극화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체제의 구조는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무엇보다도 핵심부 국가들 사이의 경쟁정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의 핵심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세계체제내에서 특정국가의 지위가 상승하기도 하는데, 이는 세계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순환주기가 특정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세계체제는 역동적인 것으로서, 이는 한 국가의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기도 한다.

지역지리연구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비록 世界는 우리의 蚌(oyster)이지만, 동시에 그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脈絡이다.<sup>20)</sup> 한 지역이 외부와 맺는 연계는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내부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외부적 연계는 한 지역이 자신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세계체제내에서의 국가별 지위변동에 대한 논의는, 세계체제가 자신의 구

18) David Harvey, "On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f geography: An historical materialist manifesto",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6(1), (1984), p.8.

19) I.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0) Cees P. Terlouw, "Regions of the world system: between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in R.J. Johnston, J. Hauer,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pp.50-66.

성인자들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테일러(Taylor)는 이러한 맥락에서 로컬러티와 범세계경제를 연계시켜 특정 국가내 특정지역의 변화를 구명하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sup>21)</sup>:

...어떤 지역이 흥망성쇠의 露臺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역이 형성 되는 과정에서 외부 힘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지역은 범세계적 분업체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한 지역의 쇠망이 그 지역이 속한 대륙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역은 영원하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각 지역을 분석해야만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속에서 그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하며, 세계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場所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그는 로컬러티와 세계체제는 두개의 분리된, 상호 무관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브래드쇼우(Bradshaw)<sup>22)</sup>와 하우스라덴(Hausladen)<sup>23)</sup>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지역변화에 대하여 세계체제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소련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前者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공간변화에 미친 영향을, 後者는 시베리아 개발이 소련 연방내 러시아의 발전과 16-20세기 초까지 세계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 4. 脫-後期構造主義的 接近(Post-poststructuralist Approach)

이는 최근 인문 사회과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人間の 主觀性和 主體가 충분히 고려되는 새로운 지역 설명틀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21) Peter James Taylor, "World-systems analysis and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0(3), (1988), p.264; "A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the case of Europ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9(2), (1991), pp.183-195.

22) Michael J. Bradshaw, "New regional geography, foreign-area studies and Perestroika", *Area*, 22(4), (1990), pp.315-322; *The Soviet Union:A New Regional Geography*, (London:Belhaven Press, 1991).

23) Gary Hausladen, "Russian Siberia:an integrative approach", *Soviet Geography*, 30(3), (1989), pp.231-252.

이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쓰립트(Thrift, N.)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는 '80년대 초반에 이미 "시공간 속에서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조화 학파의 주요 관심사를 엄밀하게 검토한 바 있다.<sup>24)</sup> 그는 여기서 構造化學派는 비기능주의적 사회이론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조화 이론 속에도 여전히 결정론적 요소가 온존해 있다고 비판하고, 좀더 소규모 공간 스케일에서 고유한 사건(unique events)을 고려하려 할 때 사회이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는 이후 인문지리학, 특히 지역지리학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많은 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신지역지리 연구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었다.

한편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sup>25)</sup>을 거쳐, 쓰립트는 최근 자신이 이전에 제기한 문제의식을 확대 발전시킨 새로운 지역지리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up>26)</sup> 그는 "탈-후기구조주의(post-poststructuralism)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지역지리연구를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서, 우선 오늘날 지역지리 논의의 다양한 변종들 -지역적 분포를 지도화하기, 로캘러티연구, 장소에 대한 인간주의적 접근 등- 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sup>27)</sup>

...이들은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첫번째 것은 지도를 곧 텍스트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두번째 것은 그 속에 구조주의가 은밀히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번째 것은 본질로서의 장소에 애착을 가진다는 점에서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로캘러티연구에 대한 그의 비판은 더욱 구체적이며 신랄하다.<sup>28)</sup>

24) Nigel J. Thrift,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1(1), (1983), pp.23-57.

25) Nigel Thrift, "Doing regional geography in a global system: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City of London, and the South East of England, 1984-7", in R.J. Johnston, J. Hauer,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pp.180-207.

26) Thrift는 최근 지역지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3편의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N. Thrift,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1",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2), (1990), pp.272-279;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2", *Op.Cit.*, 15(4), (1991), pp.456-465;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3", *Op.Cit.*, 17(1), (1993), pp.92-100.

27) Thrift, *Op.Cit.*, (1991), p.456.

28) *Ibid.*, p.459.



…1980년대 후반은 인문지리학내에서 로캘러티 개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이해해야 할 특별한 필요에서 비롯된 로캘러티 개념은, 점차 탈맥락화, 일시적 구경거리화(spectacularized), 그리고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다. 이 용어는 그 자체로서 수많은 이론가들의 논의초점이 되었으며,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하였다. 아마도 로캘러티 논쟁의 중요한 장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아무나 집적거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만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로캘러티 논쟁에서 언급된 로캘러티는 주체와 주관성이 결여된 로캘러티라는 것. 1980년대 중반에 활발하게 진행된 구조-행위논쟁은 대부분 구조 쪽의 승리로 결판이 났다.

그러면 쓰립트가 주장하는 새로운 지역지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는 “어떤 한 지역의 총체적인 생활방식을 충분히 이론화된 방식으로 발견해내고 재현하는 것”<sup>29)</sup>을 신지역지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신지역지리학이 해결해야 할 3가지 課題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판적 실재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재론이 신지역지리의 연구방법과 목적을 명료하게 밝히는데는 크게 공헌하였으나, 이는 동시에 학문의 객관성에만 집착하게 하거나 생생한 경험세계를 애매하게 다루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근래에 있었던 지리학에서의 구조와 행위수행의 논쟁은 構造의 승리로 끝났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수행은 신지역지리에서도 여전히 이론화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어떤 맥락속에서 주관성을 이론화하려는 연구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脈絡(context)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역지리는 맥락의 중요성을 포착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맥락은 거의 무시돼 왔다는 점이다. 요컨대, 신지역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관성과 주체가 설 자리가 마련된 설명틀을 구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 주체에 대한 충분히 맥락화된 설명틀과 맥락에 대한 충분히 주체화된 설명틀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쓰립트의 일관된 주장이다.

##### 5. 綜合的 考察:우리 국토공간연구에의 적실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지역지리연구는 다양한 지적흐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접근법은 각각 상이한 인식론적 토대위에서 서로 다른 설

29) Thrift, *Op.Cit.*, (1990), p.276.

명틀로 지역의 고유성과 장소의 생성·변화 메카니즘을 규명하려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접근법들 사이의 관련성은 무엇이며,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의 소단위 지역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들 접근법이 가지는 적실성은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上記한 接近法들을 어떻게 統合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地域地理論議를 統合하고자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는 와프이다. 그는 구조화 이론(와프는 이를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라 부른다)과 공간 분업론(이것은 '위로부터의 접근'이라 부른다)을 통합하여 장소에 대한 핵심이론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新地域論'(new regionalism)이라 부르고 있다.<sup>30)</sup>

그는 먼저, 국가적 및 범세계적인 공간경제 수준의 프로세스나 이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무시하는 觀念論的 接近(idealist approaches)<sup>31)</sup>과, 반대로 지방수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local agents)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法則追求的 立場<sup>32)</sup>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이러한 難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공간 스케일이 달라짐에 따라 意識的 行爲(conscious action)가 가지는 중요성도 달라진다'<sup>33)</sup>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접근은 생생한 경험과 사회-공간적 구조를 동시에 모두 고려하면서, 의식적 행위가 가지는 '限界性'(boundedness)이 연구의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각각 다른 함의와 분석적 유용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요컨대, 구조화 이론은 방법론적으로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로캘러티와 생생한 경험의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할 연구에는 가장 적절하고 성공적인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공간 스케일이 더 클 경우, 개별 행위자의 의식을 다루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이 때에는 國家나 資本의 흐름, 市場行態, 그리고 資源配分과 같은 構造的 規定力'(structural determinants)에 토대를 둔 연구가 좀더 충실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sup>34)</sup>는 것이 와프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와프는 기본적으로 소단위 지역(로캘러티)을 연구하는 데는 구조화 이론적인 접근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다만 공간 스케일이 커질수록 개별행위자의 중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적 규정력'을 설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의식적 행위가 지니는 중요성이 달라진다고

30) Warf, *Op.Cit.*, (1989), p.183.

31) 여기서는 구조화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32) 공간 분업론적 접근법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33) *Ibid.* p.182.

한 그의 지적은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앞의 言明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특정한 공간 스케일에서 행위 주체인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가지는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고 하는 점이 동시에 지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공간적으로 의식적 행위의 주체인 개별인간이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행위주체들 사이의 상이점은 바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아는 能力(knowledgeability)과 그것을 앞으로 인해 상황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행위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能力(capability)이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행위주체가 가지는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선 지방정치의 활성화 여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와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에 따라 행위자의 능력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서구 선진 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행위주체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국토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 개별 행위자의 의식과 동기를 강조하는 구조화 이론적 접근법 보다는 거시적인 규정력을 중시하는 공간 분업론적 접근법이 더욱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 Ⅲ. 中等地域地理 單元學習에의 示唆

그러면 새로운 지역지리연구는 중등학교 지역지리 단원학습에 어떤 면에서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신지역지리연구가 中等學校 地域地理 單元學習에 기여하는 바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地域은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固有性을 가진다는 것. 둘째 그것은 안정된 평형상태가 아니라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生成·變化하는 過程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따라서 地域變化의 메카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重層的이고 構造的인 接近이 요구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지리접근법을 현행 중학교 [사회1]교

34) *Ibid.*, p.183.

과서에 게재된 지역지리부분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현행 중학교 [사회1]교과서 지역지리단원에서 지향하는 주요 目的이 학생들에게 당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실적인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라면, 신지역지리 연구에서 겨냥하는 주요 목적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그 지역이 어떻게 生成·變化하고 있으며 변화의 주요 動因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가지 입장은 핵심적으로 다루는 主題도 서로 상이하다. 前者가 '각 지역의 생활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핵심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後者는 지역 正體性의 변화 메카니즘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것을 핵심주제로 삼고 있다.

지역지리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內容要素를 보면, 현행 중학교 [사회1]교과서에는 단위 지역별로 自然環境, 産業, 都市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비하여, 새로운 지역지리연구에서는 經濟(특히 산업 및 고용구조, 노동시장의 특성)를 중심으로 하여 地域政治와 地方文化 등 사회·경제적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요소들을 조직하는 방식, 곧 內容構造면에서도 兩者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前者가 自然環境 - 産業 - 都市로 이어지는 기계적이고 정형화된 구조들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後者는 상이한 공간 스케일 혹은 연속적인 경제변동 시기별로 지역의 변화모습을 살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며, 사례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조들이 약간씩 변화하는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敘述方式에서도 명료한 차이를 드러낸다. 중학교 [사회1]교과서 내용의 서술방식이 平面的 記述과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비중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새로운 지역지리접근법에서는 현상에 대한 深層的 記述과 상징해석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에서의 차이는 이들 兩者의 개별내용을 논리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주는 주요 概念들에서의 차이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前者의 경우 평면적인 사실설명을 중심으로 내용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엮어주는 핵심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後者の 경우에는 몇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이 조직되고 있는데, 예컨대 空間性(spatiality), 勞動市場(labour market), 日常經路(daily path), 投資의 層(layers of investment), 그리고 空間的 分業(spatial division of labour)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前者를 主題-分散的 接近(thematic-disintegrated approach)이라 한다면, 後者는 領域-統合的 接近(territorial-integrated approach)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접근법은 지역을 바라보는 觀點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前者가 지역을 안정적, 고정적이며 정태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하여, 後者는 그것을 생성적,

가변적이며 동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前者는 변화의 속도가 보다 완만한 전근대적인 農業社會에서의 지역을 설명하는데 適實한 반면, 後者は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폭과 깊이가 큰 産業社會에서의 지역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前者가 단위지역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미약한 閉鎖體系(closed system)로 상정하고 지역설정 기준도 行政區域이나 文化的 境界를 중시하는데 비하여, 後者は 지역을 開放體系(open system)로 보고 단위지역의 설정 기준도 행정구역이나 문화적 경계 외에 局地的 勞動市場 등 보다 역동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教育的 含意가 일선 초중등학교 현장교육에서 실제로 의미있게 실천될 때, 지역지리 단원학습은 보다 흥미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 IV.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8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역지리연구의 주요 접근법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새로운 지역지리연구 접근법들이 중등학교 지역지리 단원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연구는 설명의 보편적 법칙을 거부하며, 장소의 국지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론적 개념들을 동원하여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려는 방법론적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기존의 지리학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공간(지역, 혹은 장소)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려는 것이며, 공간이 가지는 의미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드러내려는 지적 시도이다.

신지역지리연구는 크게 네 갈래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구조화이론에서 출발하여 시간지리학으로 연결되는 연구흐름, 공간적분업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 세계체제론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연구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탈-후기구조주의 시대에 인간주체를 강조하려는 연구가 그것이다. 구조화이론적 접근은 기든스의 구조화이론과 헤게스트란드의 시간지리학을 주요 아이디어로 하는 연구들로서, 능동적이고 의식있는 인간주체를 상정하며 사회구조를 의식적 행위의 비의도적 산물로 인식함으로써 사회구조는 이를 창출하는 인간의 의도적 행위로 환원될 수도 없고 동시에

이에 독립적일 수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공간분업론적 접근은 매시의 공간적 분업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그것의 변화 메카니즘을 밝히려는 것으로 소위 로캘리티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구조는 그 지역의 역할, 즉 국가 및 국제적 분업 내에서의 비교우위에 기초해서 파악될 수 있으며, 개별지역은 광범한 경제적 프로세스 속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적 접근은 왈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것으로, 이제 세계는 국가간 연계성이 대단히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동인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총체적인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정지역과 세계체제는 두 개의 분리된 상호무관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후기구조주의적 접근은 최근 인문·사회과학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주관성과 주체가 충분히 고려되는 새로운 지역 설명틀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새로운 지역지리연구가 중등학교 지역지리 단원학습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地域은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固有性을 가진다는 것, 둘째 그것은 안정된 평형상태가 아니라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生成·變化하는 過程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地域變化의 메카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重層的이고 構造的인 接近이 요구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지리 단원의 목표가 어떤 지역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여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의 생성·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는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단원 내용요소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단위 지역별로 자연환경, 산업, 도시에 관한 내용이 정형화된 구조틀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지역지리연구에서는 경제, 특히 산업 및 고용구조, 노동시장의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정치와 지방문화 등 사회·경제적 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례지역의 특성에 따라 내용구조가 약간씩 변화하는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현행 교과서에서는 평면적 기술, 혹은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나 새로운 지역지리 접근법에서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 기술과 상징해석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教育的 含意가 일선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의미 있게 실천될 때, 지역지리 단원학습은 보다 흥미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참 고 문 헌

- 김일기, "지리교육의 제문제,"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서울:교학사, 1983.
- 이홍우, 『교육과정탐구』, 서울:박영사, 1977.
- 진기문, "고등학교 지역지리의 분석," 『지리교육논집』, 제21집, 1989.
- Cooke, Philip, ed., *Localities: The Changing Face of Urban Britain*, Unwin Hyman, 1989.
- Dear, Michael and Moos, A.I., "Structuration theory in urban analysis: 2. empirical appli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18(3), 1986.
- Giddens, Anthony,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1984.
- Gilbert, Anne,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2), 1988.
- Gregory, Derek, *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London: Hutchinson, 1978.
- , *Regional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 Revolution: A Geography of the Yorkshire Woollen Indus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 Harvey, David, "On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f geography: An historical materialist manifesto,"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6(1), 1984.
- Hauer, Joost, "What about regional geography after structuration theory?" in R.J. Johnston, J. Hauer,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 Johnston, R. J., "The world is our oyster," *Transactions of the IBG*, 9, 1984.
- , *A Question of Place: Exploring the Practice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1991.
- Jonas, Andrew, "A new regional geography of localities," *Area*, 20(2), 1988.
- Markusen, Ann, *Regions: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Territory*,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87.
- Massey, D., "Regionalism: some current issues," *Capital and Class*, 6, 1978.
- , *Spatial Division of Labour*, London: Macmillan, 1984.
- , "Questions of locality," *Geography*, 78(2), 1993.

- Pred, Allan,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Enclosure, social change and the becoming of the places in Skåne," in Gregory, D. and Urry, J.,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1985.
- Pudup, Mary Beth,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3), 1988.
- Sayer, Andrew, "The new regional geography and the problem of narra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7, 1989.
- Taylor, Peter James, "World-systems analysis and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0(3), 1988.
- , "A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the case of Euro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9(2), 1991.
- Terlouw, C. P., "World system theory and regional geography," *Tijdschrift voor Econ. en Soc. Geografie*, 80, 1989.
- Thrift, Nigel,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1,"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2), 1990.
- ,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2," *Op.Cit.*, 15(4), 1991.
- ,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3," *Op.Cit.*, 17(1), 1993.
- Wallerstein, I., *The Modern World-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Warf, Barney, "The resurrection of local uniqueness," in Golledge, R., Couclelis, H. and Gould, P., eds., *A Ground for Common Search*, Santa Barbara, CA: Santa Barbara Geographical Press, 1988.
- , "Locality studies," *Urban Geography*, 10(2), 1989.
- , "Postmodernism and the localities debate: Ontological questions and epistemological implications," *Tijdschrift voor Econ. en Soc. Geografie*, 84(3), 1993.



Abstract

The Implication of New Regional Geography  
in the Learning of Geography Unit  
in Secondary School

Myoung-cheol S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learning of regional geography unit in secondary school can be enhanced by incorporating discussions in new regional geography which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as new enhancement in geography since the mid 1980s.

New regional geography emphasizes place uniqueness rather than general rules or theories in explanation. Methodologically, it relies on precise description of places based on theoretical concepts and history. It is an attempt to recognize and interpret the space more in depth which was not satisfactory in previous geographic research. In this regard, four stands are distinguishable emphasizing place uniqueness: time-geographic approach evolving from the structuration theory; spatial division of labor approach; to re-interpret place with respect to the world systems theory; and emphasizing human agency in post-structural era. All these are new attempts to understand place uniqueness in itself and in relation with wider contexts.

Region or place in the learning of regional geography unit in secondary school needs to incorporate these discussions in which region or place can have new meanings, constantly changing and newly forming interaction with outer influences rather than being in a state of equilibrium and thus requiring multi-layered and structural approach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regional change. It allows more interesting teaching and learning when practiced in secondary school.